

사회주의와 중국 공산당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오후 12:26

• 사회주의의 전래

- 양복운동 시기 서양의 사상이 전파되며 사회주의가 전해짐.
- 중국 내 보다는 유학생, 망명자 등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이 사회주의를 석용함.
 - ↳ "고국에는 대중을 놓는 자들이 있다."
- 1949년 「민국공보」를 통해 중국에 사회주의가 알려짐.
- 내용 **유학생 일본을 통해 사상이 유입됨.**
- 마르크스는 서양인 마르크스학회를 소개. (마르크스 여러 저서를 소개)
- 신현은 일본에서 중국동맹이라는 사회주의 그룹을 결성.
- 경제학자로 역시 사회주의를 석용.
- 공산당선언이 가장 많아 암호화.
- 마르크스학회가 사회주의를 석용.

• 신해혁명 이후 사회주의 석용

- 구동화체이는 천교 기반의 사회주의 개혁을 바랐.
- 신현은 전통적인 **대중사상과 사회주의를 결합해 삼민주의를 혁명.**
- 중국인들이 사회주의를 즐거워할 수 있던 이유는 전통학파로 대중사상이 있던 때를 아닐까.
-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규모의 한 단계가 비슷한 점이 있음.
 - "사람들은 먹고 일하는 것에 대해 노력을 자제하고 계획을 할 수 있다."
- 중국인들이 결론 사회주의 사상은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라는 것이 있다.**
- 지식인마다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해석이 다름.
- ↳ 그러나!
- 러시아 혁명 이후 사회주의에 대한 영향력은 이해가 시작됨.

•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이해

- 레닌이 주도한 사회주의 혁명

• 문제라며 논쟁

- 논쟁1: 브르주아
논쟁2: 개방주의적 입장
논쟁3: 아나키스트
-) VS 사회주의
- 미국에서 유학한 조스는 사회주의를 반대. "우리나라는 브르주아는 노예야 한다."
그다음에 "이전 사회에 경제가 있을 때, 브르주아지역에 노동권들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연대기라는 사회개방주의자들이 있었다. (경쟁자라고 주도)
내연기�이 아닌 개혁을 주장. 계급독재가 아닌 계급근대화. 브르주아를 격상. 낙식화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 노동자 경쟁 경쟁으로 반대.
↳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개방주의를 비판. 노동자를 아버시기는
것이라고 생각함.

↳ 사회주의자들은 혼란에 타락의 독재를 주장. 사회를 운동하기 위해

신현 (신현)가 회생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

남현 아나키스트들은 완전한 개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중시.

• 중국 공산당 창당 준비

-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을 혁명해야 한다**고 했다.
- 베이징 대학에서 '마르크스학회' (마르크스학회 연구회)가 만들어져 막시즘이 논의됨. (베이징대 교수, 각대학자들이 참여)
- 천득숙는 상하이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했음.
- 신현은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돋기 위해 베이징에 다녀온.

• 베이징스키의 활동

- 당시 중국에선 아나키즘이 귀족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주의자들이 이들에게 연대를 제안해오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함.
-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공공장에 극장 축제
- 공장 노동자들의 문제를 듣고 친해진다는 자신의 생각을 제시 → 마하침설 → 노동자 조직 (노동조합) 설립.
- 노동자들이 일을 수 있는 잡지, 간행물을 발행.

• 쿠먼데른의 역할

- 1921년 7월 13일 대회가 모여 중국 공산당을 창당, 쿠먼데른에 가입함.
- 중국공산당은 쿠먼데른에서 파견한 베이징스키가 영향을 미쳐 창당된 것이고, 이를 **계속 쿠먼데른이 간섭을 받게 됨.** 쿠먼데른의 지령을 받고 중국공산당이 활동하는 방식.

※ 일본에서 사회주의는?

- 공산당 선언이 많이 암호화.
- 메이지 유신 이후 사회주의가 유입.
- 막시즘을 영향력이 이해하지 못한 채 번역서가 나오고, 이것으로 일본에 막시즘이 퍼짐. (개인과 개인과 동일한 것으로 번역됨.)
- 따라서 실제 사회에 사회주의를 적용할 수 없었고, 실제 사회 현실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함.
- 중국보다 1년 늦게 일본 공산당이 창당. → 일본 정부는 끊임없이 공산당원을 검거, 탄압.

일본공산당은 1945년 전까지 거의 활동하지 못하고 면밀한 유지함.

※ 한국에서 사회주의는?

- 3·1운동 이후 민족자결권칙에 실망, 복세비끼 혁명을 보며 사회주의에 희망을 가짐.
- 일본의 혼란을 시작한 이후 각종 협정자가 박탈되며 사회주의 사상이 소개됨.
- 국정부족에도 많이 퍼짐.
- 동아일보에 있던 조선인들이 사회주의 활동을 했음.
- 일본에서 '신아동맹', 상하이에서 '한인사회당' 결성.

한인사회당을 만든 이동희는 일시적 국립총재가 되고, 고려공산당을 창당.

고려공산당은 조선의 독립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추구.

이죽크로에서도 동양의 고려공산당이 만들었음. (신한 공산당 창당)

조선 내에서는 비밀스럽게 사회주의 활동이 진행됨.

↳ 서울 청년회 (서울파)

↳ 북풍회

지식인들이 분화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속성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계속 다이중한 분파가 대립하다가 1945년이 되어서야 조선공산당 창당.

고려공산당 창당과 이죽크로파
동양의 혼란을 퍼뜨렸고,
한인사회당은 일시적 국립총재가 결합을
진행했거나 이죽크로파는 그정지였다.
대체로.

↳ 들통 하나가 안정되어야
쿠먼데른의 지령을 받는데
계속 대립함. → 조선 내 사회주의자들이
이들을 보정적으로 봐게 됨.